

체질 기도 (열왕기상 20:35-43)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체질 기도이다. 체질이 된 기도라는 뜻이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는 것은 완전답, 절대 답을 가졌다는 말이다. 완전 답이라는 것은 이것 하나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것이다. 절대 답이라는 것은 이것 말고는 답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는 답이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복음 누리면 저주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 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이 따로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작품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반드시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답인줄 대부분 모른다. 누구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답을 모르니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으로 싸우고 속는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은 가는 곳이 따로 있다. 이 땅에서는 저주와 영적문제이다. 마지막은 지옥으로 간다.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적 문제 말할 것도 없다. 몸 하나만 아파도 지금까지 성공한게 아무 의미 없다.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지옥 가면 질문조차 할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가졌다. 복음으로 성공하고 끝까지 성공하고 행복해 지는 답을 가졌다. 이제 이것을 하는 일만 남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고 아무도 막지 못한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단도 절대 막지 못한다.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이다. 늘 듣는 말이지만 답이 되면 영원히 새롭고 매일 새로워진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들어가기 바란다. 응답 받아가면서 간다는 것이다. 응답이 있어야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응답이 지속이 안되면 끝까지는 못간다. 처음에 잠깐은 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죽을때까지, 땅끝까지 가기 원하신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이것이 들어오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과 소원을 아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 준비가 되는 것이다. 남은 것은 누리며 여정을 가는 것이다.

1. 체질 기도

우리에게 체질이 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아합왕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을 행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낭패를 당했다. 20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북쪽의 큰 나라, 아람에서 왕의 이름이 벳하달인데,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이다. 한번 쳐들어오고 그 다음해에 또 쳐들어왔다. 처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졌다. 선지자의 말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다. 그런데 또 졌다. 그리고 아람왕이 생포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면서 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아합왕이 자기 맘대로 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42-43절에 써 놨다. 42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람왕을 죽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합이 자기 스스로 놓아줘버렸다. 그래서 그 대신에 너가 죽을거라는 말씀을 한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거라는 것이다. 아마 왕이 굉장한 낭패를 당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찌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

님께 응답을 구한다. 그리고 이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질문을 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종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하면 사실은 일꾼 아닌가? 결국 그 마음이나 자세가 그렇지 않냐는 것이다. 아합왕도 마찬가지이다. 전부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다가 아람군을 이겼다. 한꺼번에 10만명이나 죽였다. 그랬는데도, 정작 중요한 것에는 자기 맘대로 결정하고 끝내버렸다. 당시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부터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시대를 두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그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에 또 한 사람을 희생시켰다. 35절에 보면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에게 얼굴 얻어맞고 변장하고 가서 왕에게 전달하라는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친구 선지자에게 치라 했는데, 그가 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다면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 쳤다. 그래서 36절에 그가 사자에게 죽을거라 했는데, 실제로 일어났다. 사실 친구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말이라 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대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자가 죽이게 만드신 것이다.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다는 것은 안하면 안되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거인데, 그것을 안해서 죽게 되었다.

얼마전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유다에서 한 사람이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고 돌아오다가 베델의 늪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사자에 물려 죽은 일이 있었다. 비슷한 이야기이다.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시대적인 귀중한 이 일을 한 내 종인데, 그를 사자에 물려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내가 어떤 간증을 듣는데, 이 분은 교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날 마음에 왔다. 너가 3년간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 고난을 너의 몸에 준다 했다. 그랬더니 모든게 아프고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도대체 왜냐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헤깔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다시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나는 더 힘들다. 니가 당하는 것을 보니 나는 더 힘들다. 그러면 중단하면 될 것 아닌가? 중단을 안한다. 왜그런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를 쳐다보는 내가 더 힘들지만 이것을 여기서 중단할 수가 없다. 3년후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아주 제자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비슷한 심경이 아니었을까 싶다. 친구 선지자의 마음이. 친구를 어떻게 때리나?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많이 때리고 죽지 않았다. 친구 선지자가 여호와 의 말씀으로 말했다고 해도 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안 때린게 사람사이에서는 당연하고 칭찬받는 일일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자에 물려 죽게 하였다. 여기는 그 시체를 먹은지 안 먹은지 기록은 없다. 13장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나귀가 있었는데도 사자가 그냥 지키고 있었다. 굉장한 메시지이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이다.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리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는 비록 사자에 물려 죽었지만 그가 옳았다는 말씀 아닌가? 너희도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친구 선지자는 상세한 것은 없지만 비슷한 메시지이다. 모든 응답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자기 맘대로 해 버린 것이다. 왕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한 선지자가 전령터에서 맞은 것으로 꾸미려고 하는데 친구가 협조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사자에 물려 죽은 것이다. 이유는 상관없고 내 말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해는 하지만 결국 인본주의 였다는 것이다. 사랑이라든지, 친구를 어

떻게 때리는가 하는 것들,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말씀이 다 깨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니가 니 친구 선지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니가 너의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도 100%지만 하나님의 무서움도 100%이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결국 방해하였다. 이해는 가지만.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사랑을 보이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사랑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이 너에게 뭐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산다. 나에게도 그것이 이익이다. 친구 선지자는 이 길을 택하지 않았기에 애석하지만 죽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유나 생각 상관없이 죽을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내가 산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시당하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왕이 제멋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 할 것이다. 그 왕이 죽어야 할 그 때에, 니가 죽을 것이다. 사실은 그 왕이 나와 관계 없는 그 왕이 죽어야 하는데 니가 죽어야 한다.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너의 백성이 그의 백성 대신 죽을 것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선택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중대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의 선택을 하겠는가? 전부터 반대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우리 각 가정도,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기준에서 떠나면 죽는다는 말인데, 더 심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니가 대신 죽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받아야 하고 들어오면 내가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다. 네가 죽이려는 자를 살렸기 때문에 니가 대신 죽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어 사는 체질이 되어야 한다.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해야 한다. 아합왕이 체질을 가진 기도가 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뒤엎어진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던 중에 항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절대로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라. 이런 참된 종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2.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아합왕이 기도를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합왕이 너무 근심될 메시지를 줬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람왕 대신 니가 죽을것이고 너의 백성도 쓸데 없는 이방인 백성대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했으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고 잊어버린다. 잘하는 분도 있다. 어떤 분이 오래 전에 차를 사게 되었다. 그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남편이 차를 살까 하는데, 이번주 다가오는 주일에 강단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줬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차사는 것과 강단제목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응답받겠다. 평생 이런 삶을 지속하면 분명 다른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응답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차사는 것과 강단은 상관 없을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강단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아야 한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된 뜻을 기록해 놓았다.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에 이미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기록해놨다. 근본 원칙, 원리, 방향은 써놨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 욥기 23:13, 그는 뜻이 일정하다고 했다. 삼상 15:29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믿는가? 믿기만 하지 말고 들어와서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래야 그 때부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그 전에는 복음 밖에서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기존교인과 같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와 언약이 되면 정복이 나타난다. 그 전에는 예수 믿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작품 못 만든다. 죽은 친구 선지자도 선지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이 뭔가에 대해 예민하지 않았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못한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전행해야 하고 제자 만들어야 하고 뱀의 머리를 깨야 한다. 그냥 믿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성경같은 응답을 못 받는다. 언약 들어와야 하고 눈 열리고 언약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된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할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다. 물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방향이 확실하다면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응답이다. 이 방향이 내게 들어와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방향이 되어 버리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응답이다. 방향 놓치지 않고 언약 잡고 그 길에 서 있다면 누구나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한 말씀이 강단이고 훈련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해석한 것이 강단이고 훈련메시지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항상 기록된 말씀의 범주 안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른 해석이어야 한다. 이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기록된 말씀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목표와 이유를 이미 기록해 놓았기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대적이다. 그리고 계속 되기 때문에 흐름이 생긴다. 말씀이 목표를 향해 계속 발전되어가기 때문에 흐름이 생기는 것이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이다. 발전하는 흐름이다. 하나님의 방향이 언약으로 살아있으면 우리 인생이 발전한다. 인생이 발전하여 더 크게 되고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씀을 잡아야 하고 따라가야 한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맘대로 하시는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이미 말해놓으셨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진짜로 늘 그렇게 하셨다. 끝까지, 그리고 한번도 바뀌어도 없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한 강단과 훈련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단 조건은 그 강단과 훈련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 범주안에 있어야 한다.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그리스도이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마음에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은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 한다. 하나님의 흐름을 타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수 없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기도하여 얻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리와 원칙의 근본을 기록한 것이다. 말씀의 흐름을 따르므로 아합과 같은 중대한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도 기도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이 시스템이 있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눈곱만한 시스템도 세울수 없다. 어떻게 체질기도를 하겠는가? 계속 하면 되는가? 계속해도 어느날 체질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 큰 응답 받고 시대적인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